

# 칼빈과 웨버의 經濟思想

張 鍾 哲

## 《 目 次 》

- |                             |                   |
|-----------------------------|-------------------|
| I. 緒論                       | 3. 職業의 倫理的 性格     |
| II. 웨버의 經濟思想                | IV. 웨버의 論題에 대한 批判 |
| 1. 生涯                       | 1. 宗教的 基礎의 分析     |
| 2. 웨버의 思想的 背景               | 1) Beruf의 概念      |
| 3. 「프로테스탄트의 倫理와<br>資本主義 精神」 | 2) 豫定과 自由意志       |
| III. 웨버의 論題：<br>職業과 經濟倫理    | 2. 칼빈의 社會的 휴머니즘   |
| 1. 資本主義 精神                  | 1) 中産 階級의 經濟倫理    |
| 2. 職業의 概念                   | 2) 貨幣 流通과 利子      |
|                             | V. 結論             |

## I. 緒論

近代 西洋文明에서 하나의 特徵을 이루고 있는 社會經濟의 起源을 宗教改革에서 찾으려고 한 代表的인 사람은 막스 웨버(Max Weber)였다. 웨버는 「프로테스탄트 倫理와 資本主義 精神」(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1904-5)에서 프로테스탄트의 職業思想이 近代 資本主義 精神의 倫理的 性格을 이루었다는 論題를 다루었다.

웨버는 그의 論題 안에서 職業과 經濟倫理間의 內面的 聯關性은 不可分의 關係를 가지고 있다고 論證하였다. 最近에 이르기까지 웨버의 論題를 中心으로 많은 研究가 있어 왔는데, 그런 論議 가운데서 우리의 焦點을 모으게 하는 것은 프로테스탄트의 職業思想과 中產階級の 經濟倫理 形成에 論理的 根據로 되어 온 칼빈주의에 대한 解釋에 있어서 웨버가 基本的인 誤謬가 있었다는 問題들에 대한 考察과 現代的 解釋을 試圖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웨버의 論題에 대한 우리의 關心은 理解와 批判을 兼할 수밖에 없다.

이 問題를 다루어 가는데 緒論的 課題로서 筆者는 ① 웨버의 生涯와 思想的 背景을 敘述함으로써 웨버의 思想을 理解하려고 하며, ② 웨버가 그의 論題로 삼아온 資本主義 精神과 職業의 概念, 그리고 職業의 倫理的 性格(禁慾主義)의 關聯性을 分析하기 위하여 웨버의 理解에 따라서 敘述하고, ③ 그의 論題 안에 지닌 批判的인 問題點을 다음의 角度에서 接近하려고 한다. 筆者는 본 論文에서 ① 宗教的 基礎의 理論的 根據를 提示한 뒤 웨버의 研究인 루터의 Beruf 概念이 웨버 自身の ‘主觀的 意味’의 照明아래서 루터의 思想을 歪曲하고 있다는 점을 指摘하고자 하며, 또한 웨버가 理解한 칼빈주의의 二重豫定論은(칼빈의 思想과는 本來 그 意圖가 다른 것) 웨버가 이미 歪曲된 理論을 끌어 들임으로 범한 웨버의 誤謬를 지적하려고 한다. ② 또한 筆者는 웨버가 主張한 칼빈주의(淸教徒)의 產物이라고 하는 中產階級の 生活倫理에서 여러가지 不適合한 면을 評價하면서 칼빈의 社會的 휴머니즘이란 觀點에서 칼빈의 經濟思想을 새롭게 解釋하려고 한다. 우리는 칼빈이 中產階級の 經濟倫理에서 謹慎, 正義, 敬虔에 立脚하여 勤勉한 生活倫理를 濟唱하여 無秩序한 社會의 淨化運動과 財貨에 대한 貧富間의 相互扶助

와 連帶意識을 強調한 점에서 보아 칼빈에게서 資本主義의 面貌를 찾아보기는 힘들다는 것을 指摘하려고 한다. 또한 웨버는 高利貸金의 許容을 칼빈에게로 돌리고 있으나 웨버는 이 점을 誤解하고 있었음을 歷史的 事實에 비추어 指摘하고, 利子에 對한 칼빈의 主張을 밝혀보고, 또한 칼빈의 經濟思想의 核心을 밝혀려고 한다.

## Ⅱ. 웨버의 經濟思想

### 1. 生涯

막스 웨버(Max Weber)는 1864年 4月 26日 獨逸 비스마르크(Bismarck) 時代에 法律家이며 國民自由黨 議員인 아버지(宗敎에는 無關心한)와 人道主義的이고 正統敎會의 宗敎的 敬虔과 知的인 敎養을 兼備한 어머니 사이에서 長子로 태어났다. 그의 가정은 知的 水準이 높은 學問的인 霧圍氣에 싸여 탁월한 自由主義 政治家들과 有名한 敎授들의 集合所였다. 이런 知的 霧圍氣 속에서 그는 29세가 될 때까지 살아왔다. 그는 1882年 이래로 스트라우스부르크(Strausburg), 하이델베르그(Heidelberg), 그리고 베르린(Berlin) 大學에서 法律, 經濟, 哲學을 工夫하였고 軍에 入隊하여 軍服務의 任務를 마친 후 1886년에는 法律家 試驗을 보았고, 1891년에는 베르린(Berlin) 大學에서 敎鞭을 잡았다. 1893년에는 마리안느 쉬닉커(Marianne Schnitger)와 結婚하였고, 1894年 후라이베르그(Freiberg) 大學에서 正敎授가 되었다. 1897年 병들어 잠시 學問的 研究生活을 中斷하여야 하였으나, 4年後에는 다시 熱熱히 研究生活을 시작하였다. 1904년에는 美國으로부터 招請을 받아 美國을 訪問하였다. 1907년부터는 相續받은 遺

産으로 個人的인 研究生活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世界 第 1次大戰으로 研究가 中斷되기도 하였으나 다시 계속되었다. 1918년에는 베르사이유에서 獨逸 休戰委員團의 顧問으로 活動하였고 바이마르(Weimar) 憲法을 草案하는데도 커다란 役割을 하였다. 그해 여름에는 비엔나(Vienna) 大學에서도 가르쳤고, 1919年 뮌히(Munich) 大學에서 가르칠 것을 受諾하였으나 1920年 56歲를 일기로 痲疫 때문에 生을 마치게 되었다. 특히 막스 웨버의 부인 마리안느 웨버(Marianne Weber)에 의하면 1902年은 웨버에 있어서 一轉換期라고 한다. 그 以前의 時期에 대하여 그 以後의 時期를 '새로운 段階'(Neue Phase)라고 부른다.<sup>1)</sup>

## 2. 웨버의 思想的 背景<sup>2)</sup>

웨버의 倫理는 프로테스탄트의 宗教思想과 新칸트學派의 認識論과 倫理와의 綜合이다. 그가 받은 프로테스탄트의 宗教思想은 保守的인 神學보다는 自由主義 神學이었고, 他律的인 倫理보다는 自律的인 倫理였다. 그는 新칸트學派에서 感性보다는 意識的 認識을 對象으로 하는 認識論에 根據한 自由主義의 綜合的 思想을 體得하였

---

1) 웨버의 生涯에 관한 傳記는 Marianne Weber의 Weber 傳記에 依存하였음. Marianne Weber, Max Weber(Heidelberg: Lambert Schneider, 1950) 웨버의 研究에 있어서 그의 婦人의 著書는 不可缺한 文獻이다.

2) 本論文에서는 Honigsheim, P., "Max Weber: His Religious and Ethical Background and Development." Lewis and Clark College, Portland, Oregon, Church History Vol. XIX, No. 4, 1950 을 中心으로 웨버의 倫理形成의 背景을 더듬어 보고자 한다. ·

다. 웨버 倫理의 ‘至上命令’(Categorical Imperative)은 “宗教의 이며 倫理的인 課題”(Religio - Ethical Problem)가 支配的인 思想이다. 또한 웨버는 이러한 根據 위에서 人間理解와 그의 倫理를 形成하였다. 웨버는 人間行爲의 指針이 되는 二重倫理, 즉 心情的 倫理와 責任의 倫理를 濟唱하였다.

그러면 웨버는 그러한 倫理를 形成하는데 어떠한 背景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 보기로 한다. 웨버의 倫理形成은 주로 家庭의 宗教的 霧圍氣와 新칸트 學派의 프로테스탄트(Neo-Kantian Protestant) 神學者들 그리고 톨스토이를 통한 山上寶訓과 基督敎的인 人道主義 思想, 그리고 도스토옙스키를 통한 人間の 悲劇論에 影響을 받았다. 家庭의 背景에서 볼 때 웨버는 그의 四寸이 되는 바움갈덴과 叔父 하우스라트와 자주 接觸하면서 宗教와 神學的인 討論을 하였다. 前者는 聖書 批評學을 自處하는 自由主義 神學者였으며, 後者는 하이델베르그 大學의 教理史 教授였다.

웨버는 新칸트學派의 빈델반트(Windelband), 딜타이(W. Dilthey), 릿켈트(Rickert)로부터 認識論的 影響을 받아 ‘主觀的 意味’<sup>3)</sup>에 基礎한 獨自的인 社會科學의 方法論을 形式하였다.

또한 웨버는 新칸트學派의 프로테스탄트 神學者 슬라이엘마하(Schleiermacher), 릿츨(A. Ritschle), 그리고 트릴치(E. T-

---

3) ‘主觀的 意味’(Subjektiversinn)는 웨버의 사회과학 방법에 獨自性을 지니고 있는 개념이다. 웨버는 주체성에 依據하여 社會科學의 統一性을 찾으려고 하였다. 主觀的 意味란 행위하는 當事者 自身이 자기가 主觀的으로 思念된 意味(sinn)를 말한다.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나 그것은 행위자의 意識을 떠나서 存在하는 意味가 아니라 행위자 自身이 思念하는 意味 혹은 행위자가 思念하리라고 看過할 수 있는 意味를 말하는 것이다(Max Weber: Wissenschaftslehre Tübingen, 1922. S. 213).

roelisch)로부터 神學思想의 影響을 받아 ‘自由主義와 社會思想’에 立脚하여 儀式主義를 배격하고 개인의 尊嚴性和 프로테스탄트의 社會構造와 狀況을 分析하는 것이 그의 課題였다. 웨버에 있어서 倫理의 中心問題는 “宗教的이며 倫理的인 課題”이었다. 그것은 웨버의 全生涯와 思想을 支配하고 있었다. 이 思想은 웨버가 받은 神學思想의 影響이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그가 받은 神學의 過程을 살펴보기로 하자.

술라이엘마하는 칸트(Kant)의 先驗主義에 基礎한 至上命令에 對한 反動으로 知識과 意志가 綜合된 “絶對依存의 感情”을 宗教라고 規定하여 ‘感情의 神學’을 濟唱하였다. 그러나 다시 술라이엘마하의 “感情의 神學”에 對한 反動으로 릿츨은 自然과 實證적인 것과 相關의 面을 理解하면서 新칸트學派의 哲學에 立脚하여 基督教의 眞理를 ‘感情’에서 ‘道德的 價値’로 轉換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릿츨의 神學은 칸트의 實踐理性의 要請이었다. 그러므로 神의 存在有無에 對한 ‘事實判斷’보다는 ‘價値判斷’의 重要함을 立證한 것이다.<sup>4)</sup> 릿츨의 神學은 칸트의 普遍化 했던 “至上命令”을 特殊化한 面이 있다. 그러므로 릿츨은 神을 信仰하는 것이 宗教요, 靈魂의 無限大가 倫理의 課題라고 하여 宗教와 倫理의 關係를 神學의 中心으로 하였던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릿츨의 ‘至上命令’은 “倫理的이며 宗教的인 命令”(Ethico-Religious Command)이었다. 이와같이 릿츨은 神學을 人間學의 領域에서 價値를 찾으려함에 즈음하여 트릴취는 歷史와 文化를 통하여 人間을 理解하려는 달타이의 影響을 받아 歷史와 社會와의 關係에서 宗教를 理解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릿츨의 ‘至上命令’과 密接한 影響力을 보게 된

---

4) Lyman E. E., "Ritschls Theory of value-Judgements." The Journal of Religion. Sep. 1925. P. 500ff.

다. 또한 웨버는 歷史안에서 여러 時代와 世界의 相異한 地域에 있는 宗教組織과 宗教倫理 그리고 經濟構造들을 比較 研究했던 事實로서 우리는 트릴취와의 相互간의 밀접한 影響을 볼 수 있다.<sup>5)</sup> 또한 우리는 웨버에게서 ‘事實判斷’과 ‘價値判斷’에 立脚한 人間理解의 基礎를 그의 「悲劇論」에서 볼 수 있다.<sup>6)</sup> 웨버는 現實的인 人間, 그 自體를 悲劇的인 存在로 보았다. 그리고 그는 人間實存의 悲劇을 가장 가까이 들여다 보았다. 쇼펜하우엘(Schopenhauer)은 人間實存의 悲劇을 보면서 現實逃避와 厭世主義로 기울어 졌으나, 웨버는 사실적인 人間 그 自體의 悲劇을 現實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점에 있어서 웨버는 悲劇論者에 속한다.<sup>7)</sup> 그러나 웨버는 그의 「悲劇論」속에서 人間實存의 현실적인 ‘悲劇’(tragic)을 보고 거기에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또 하나의 새로운 原理가 작용한다. 그 原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Nevertheless)라는 倫理的 要請이 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웨버의 悲劇論 속에는 두개의 原理가 共存하게 된다.<sup>8)</sup> 이러한 原理를 說明하면서 웨버는 人間の 認識能力은 制限되고 人間の 實存은 悲劇일지라도 그럼에도 불

---

5) Weber. M.,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trans. by Parsons. T.,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 1958. pp. 27, 284.

6) Rickert. H., "Max Weber und Seine Stellung zur wissenschaft" *Logos*, XV(Tubingen, 1926) S. 231 (Honigsneini. p., op. cit p.20에서 重引)

7) Honigsheim. op., cit., p. 21.

8) *Ibid.*, p. 18.

Weber. M., "Science as A Vocation", From *Max Weber Essays in Sociology* trans. by H. H. Gerth and C. Wright Mills(New York, 1946) p. 143.

구하고 그대에게 附課된 倫理的인 要請에 따라서 그대는 그대의 勞力을 不斷히 隨行하라<sup>9)</sup>고 한다. 웨버는 이러한 悲劇論을 도스또옌스끼에서 影響받아 新칸트學派의 '至上命令'과 綜合 形成하였다.

그러나 웨버의 悲劇意識은 理論으로만 強調된 것이 아니라 그 自身의 삶 속에서 實踐되었다. 이러한 人間理解의 基礎 위에서 웨버는 人間의 窮極的 目的에 관한 實踐的 行爲의 指針이 될 倫理를 提示하고 있다. 이것이 웨버의 二重倫理이다. 웨버는 倫理를 두가지로 區分했다. 그것은 基本 倫理와 責任의 倫理이다.<sup>10)</sup> 兩者는 不可分의 關係를 가진다. 前者는 行爲者가 宗教的 信念에 의하여 取하는 行爲의 指導原理로써 一切의 自己 成功을 全의으로 神의 意志에 歸納시키는 것이며, 後者는 行爲者가 자기의 行爲의 結果에 대하여 스스로 責任을 지는 行動의 指導原理이다. 前者는 聖者의 이미지요, 後者는 英雄의 이미지다. 이 두 原理는 언제나 서로 맞서는 것이라고 웨버는 보았다.

### 3. 「프로테스탄트 倫理와 資本主義의 精神」

웨버의 主要 關心事는 宗教的 理念이 社會 經濟 發達과 密接한 關係를 가졌다는 것을 밝혀주는 데 있다. 웨버는 人間의 歷史란 社會 經濟的 現實을 어떠한 窮極的인 原因에 의하여 밝혀보려는 態度

9) Honigsheim. p., p. 21.

10) 基本倫理(혹은 信念의 倫理로도 사용됨)는 Radical Ethic과 Ethic of ultimate Concern의 두가지로 使用되며 責任倫理와 區別된다. 웨버에 의하면 인간은 兩者의 倫理中 반드시 하나를 자기의 결단에 의하여 선택하도록 促求된다. 前者는 他律的인 倫理며, 後者는 自律的인 倫理이다. 前者는 宗教的인데 基礎를 두며, 後者는 人間學에 基礎하고 있다. 兩者의 倫理는 다음의 事實 가운데서 根本的인 差異가 있다고 한다.



를 獨斷的 方法이라고 보고 批判하였다. 그는 宗教的 理念에 의하여 人間 歷史를 一般的으로 생각하려는 唯心論的 命題나 또는 物質과 經濟構造에 의하여 說明하려는 唯物論的 命題나 모두 經驗科學으로는 立證할 수 없으며 兩者는 相互 聯關性을 가진 問題라고 보았다.<sup>11)</sup> 이러한 그의 態度는 「프로테스탄트 倫理와 資本主義의

	基本倫理	責任의 倫理
① 眞理에 대한 態度	創造의 執拗를 重要視함	個人과 集團의 權威를 重視함
② 行爲에 대한 態度	目的을 重要視함	手段을 重要視함
③ 價値에 대한 態度	審美的임	科學的임
④ 財貨에 대한 態度	聖書의 教訓을 態度	經濟的 分配의 法則을 따름
⑤ 戰爭, 革命, 職業에 대한 態度	否定的(Aesthetic) 임	調和와 和解를 함

웨버는 基本倫理에 比하여 責任의 倫理를 強調한다. 그러나 兩者는 相互 不可分의 關係에 있다. 웨버는 兩者의 關係에 있어서 知性的인 犧牲으로써 統合의 方向을 止揚할 것을 主張한다.

cf. Ibid., p. 16

Weber, M., "Politics as A Vocation", from Max Weber: Essays in Sociology trans. by H. H. Gerth and C. Wright Mill (New York) 1946. p. 120. Weber, M., "Science as A Vocation" p.p. 153, 155.

- 11) 웨버는 헤겔과 같이 理念(Idea)만이 아니고 마르크스와 같이 物質(matter)만도 아닌 人間行爲에 있어서 物質的이고 理念的인 關心(Material and Ideal Interest)을 중요시 함으로써 兩者의 極端에 다리를 놓았다고 잉거(Yinger)는 지적하였다.

(Yinger, M. J., Religion, Society and The Individual New

精神」에서 一貫되고 있다. 이 著書에서 그가 論反하고 있는 것은 唯物史觀에 對立되는 唯心論的 方法에 의하여 歷史를 밝혀 보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웨버는 資本主義 精神을 物質과 經濟 構造에 의한 單純한 ‘이데올로기’로 보든지 또는 그 自體 獨立하여 있는 宗教의 理念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있다. ‘資本主義 精神이 다만 宗教改革의 一定한 影響에서의 產物으로써 발생할 수 있었다든가 이와달리 資本主義란 經濟制度가 宗教改革의 產物이라고 말하는 바보 같은 空論을 主張코자 하는 것은 아니다<sup>12)</sup>’라고 웨버는 말한다. 이 研究의 意圖는 ‘偏狹한 唯物論的 文化觀, 歷史觀에 代替하여 꼭같이 偏狹한 唯心論的 因果的 文化觀, 歷史觀’을 두고자 하지 않는다. 이 兩者는 다같이 可能하다.<sup>13)</sup> 그가 이곳에서 밝히고자 한 것은 市民的 社會層에 의하여 담당된 合理的 生活態度에의 普遍的 傾向이 資本主義的 經濟와 프로테스탄트의 倫理 사이의 內面的 聯關性을 뒷바침해 주는 限에 있어서만 資本主義 精神이 있다고 밝히므로써 마르크스主義에 挑戰하였다.<sup>14)</sup>

그러면 웨버는 이 著書를 形成하는데 어떠한 論理的 過程을 밟아왔는가를 살펴 보기로 한다.

資本主義는 그 起源으로 보아 옛날로 遡及되지만 現代的 意味에서의 完成은 16世紀와 17世紀에 이르러 形成되었다. 歷史적으로 보아 經濟制度가 發達될 만한 時期는 16, 17世紀 以前에도 여러번

---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60) p. 296. cf. Bendix, R. Max Weber: an Intellectual Portrait, Apouleday Anchor Book, New York, 1962. p. 46.

12) Weber, M., op. cit. p. 91.

13) Ibid., p. 183.

14) Bendix, R., op. cit., p. 49. cf. Marianne Weber: op. cit., p. 652.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16, 17세기에 이르러 隆盛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그의 주요한 關心事이었다. 즉, 經濟的면으로만 解釋할 때 以前에도 有利한 條件은 있었다. 그러나 16, 17세기에 와서 資本主義가 急激하게 發達된 原因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 그의 疑問이었다.

傳統的인 學說들은 急激한 資本主義 發達의 起源을 說明하는데 있어서 經濟的인 側面에서만 보아왔으나<sup>15)</sup> 여기에 대해서 웨버는 하나의 假說을 세웠다. 그것은 16세기에 하나의 特別한 宗教運動이었던 칼빈주의와 資本主義와의 사이에 어떤 聯關性이 없겠는가 하는 것이다.

이 假說을 立證하기 위하여 웨버는 産業이 발달된 地域의 社會

15) 1) W. Sombart는 자본주의의 기원을 유대인의 ① Diaspora ② 流浪意識 ③ 半市民待遇 ④ 致富에서 (cf. Sombart, W., *The Jews and Modern Capitalism*. The Free Press, Glencoe, Illinois New York, 1951 p. 169)

2) Brentano는 Protestantism이나 Sombart의 이론에 반대하여 Catholicism에 優位를 強調하고 Machiavelli의 政治思想이 직접적인 요인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cf. Yinger, J. M., *Religion in the struggle for Power*,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1946. p. 126.

cf. Tawney, R. H., *Religion and The Rise of Capitalism*. Penguin Books, West prayton, Middlessex London, 1948. pp. 312-3.

3) FA. Fanfani는 Brentano에 반대하여 14세기경에 英國에서 毛織工業의 발생으로 일어난 Enclosure Movement에서 (cf. Fantani, A., *Catholicism*. London: Sheed and Ward, 1935. p. 164) 각각 기원을 설명하고 있다.

心理的인 要因을 研究하였다. 웨버가 그러한 地域에서 發見할 수 있었던 것은 在來의인 思考方式과 같이 最小限의 勞力으로 最大限의 利潤을 얻으려는 不合理한 精神에 반하여 勤勉, 儉素, 節約, 正直에 의하여 勞動을 자기의 義務로 여기는 社會 心理的인 要素가 있음을 發見하였다. 웨버는 이러한 精神을 남게한 것은 어떤 共同體의 生活理念의 結果라고 보았다.<sup>16)</sup> 웨버는 이것을 17世紀의 英國의 칼빈주의적 淸教徒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웨버는 ‘利潤追求’와 ‘合理性’을 特徵으로 하는 資本主義와 禁慾主義와 非人格性을 特徵으로 하는 칼빈주의와의 內面的 關聯性을 究明하였다.<sup>17)</sup> 이 內面的 關聯性을 說明하는데 웨버는 칼빈주의의 倫理的 特徵을 남게한 것은 宗教改革者들의 召命思想과 칼빈주의의 豫定論에 起因하고 있었음을 指摘하였다. 그러므로 웨버는 資本主義 精神과 칼빈주의 倫理 사이에 이러한 論理를 構築하고 ‘프로테스탄트의 倫理와 資本主義 精神’에서 經濟的 發展과 宗教的 理念 사이의 關聯性을 試圖한 序論的 研究인 것이다.

### Ⅲ. 웨버의 論題 : 職業과 經濟倫理

西歐文明의 社會的 構造와 그 活力을 프로테스탄트의 信仰에서 理解하려는 하나의 試圖로서 웨버는 近代資本主義 精神의 倫理的 基因을 宗教改革者들의 職業思想에서 理解하였다.

특히 웨버는 資本主義와 칼빈주의와의 相互 關聯性에서 資本主

16) Cf. Bendix, R., op. cit., pp. 55, 56, 76.

17) 좀발트는 웨버가 주장하는 非人格性과 禁慾主義, 그리고 合理主義 利潤追求의 精神은 淸教徒의 思想이 아니라 유대의 宗教와 哲學에서 빌어온 思想이라고 웨버를 論駁했다.(cf. Sombart, W., op. cit., pp. 248-251)

義 精神에 基礎된 經濟倫理와 프로테스탄트의 世俗的 職業活動에 基礎하고 있는 論理的 根據를 規程하였다. 웨버는 前者의 特徵을 ‘利潤追求’와 ‘合理性’으로, 後者의 特徵을 ‘非人格性’과 ‘禁慾主義’로 各各 規程하였다. 그리고 웨버는 前記에 規定된 特徵에 따라 兩者의 相互聯關性을 論證하였다.

本章에서 우리는 職業과 經濟倫理의 相互聯關性을 웨버의 論題에 따라서 理解하려고 한다. 經濟倫理는 웨버가 規定한 ‘資本主義精神’의 論理的 特徵을 말하며, 職業概念은 루터에서 出發하여 칼빈에 이르는 論理的 過程을 웨버의 理解에 따라 論考하려고 한다.

### 1. 資本主義의 精神<sup>1)</sup>

近代 資本主義 精神과 그 起源이란 무엇인가? 웨버는 이 問題에 대한 解答을 試圖하기 위하여 먼저 產業地域에 대한 歷史的 考察을 實施하였다. 웨버는 그의 調査에서 ‘中産階級의 形成이 主로 프로테스탄트의 地域에서 發生하였다는 事實’을 指摘했다. 그리고 企業家, 財政家, 商人 그리고 技術, 專門家들이 있는 地域은 가톨릭보다는 프로테스탄트가 높은 比率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가톨릭은 手工業에 從事하고 있다는 事實을 發見했다.

또한 16세기와 17세기에 그러한 地域의 分布를 보면 프로테스탄트 중 특히 칼빈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佛蘭西의 유구노地方(Huguenot), 和蘭, 英國, 그리고 스페인地方이었다. 또한 웨버는 그러한 地域에서 勤勉, 儉素, 節約, 正直에 따라서 職業義務(Berufspflicht)를 生活原理로 하는 特殊한 商業精神을 發見할 수 있었다.

---

1) Weber. M.,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英譯), p. 47 以後 이 책명을 PK로 略記함.

웨버는 産業이 發達된 이러한 地域의 企業精神을 어떤 特殊한 集團의 生活理念에서 나온 產物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일찍이 몽테스큐(Montesquieu)는 英國의 프로테스탄트를 指稱해서 “그들은 敬虔, 商業, 自由 이 세가지 事實에서 모든 다른 國民들보다 優越하다”<sup>2)</sup>고 指摘한 바 있다.

이러한 프로테스탄트의 卓越한 歷史的 事件을 回顧하면서 웨버는 近代에 이르러 發生된 資本主義 精神의 ‘倫理的 性格’은 어디서 왔을까 스스로 質問하였다. 그리고 웨버는 宗教改革 以後에 일어난 프로테스탄티즘의 禁慾主義 運動과 資本主義 發達과 어떤 內面的인 相互聯關性이 있을 것이라는 推測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웨버는 16世紀와 17世紀에 있었던 하나의 特殊한 禁慾主義 運動이 칼빈주의 神學의 支配的인 影響일 것이라고 하여 스스로 問題의 解答을 던졌다.<sup>3)</sup>

그리고 웨버는 資本主義와 칼빈주의와의 聯關性을 찾으려고 하였다. 이 兩者의 聯關性을 맺는데 있어서 웨버는 그의 特殊한 社會科學의 方法論이었던 ‘理念型’(Ideal typus)의 方法을 驅使하여 接近과 分析을 試圖하였다. 그러나 兩者의 相互關係를 說明하기 前에 먼저 資本主義 精神을 規定하였다.<sup>4)</sup>

웨버는 資本主義를 規定하는데 商人資本主義(Handler Kapitalismus)<sup>5)</sup>나 賤民資本主義(Pariakapitalismus), 그리고 政

2) PK. p. 45.

Cf. Fullerton, K., “Calvinism and Capitalism”, ed. by Green, R. W., Protestant and Capitalism, D. C. Head and Co. Boston 1959 p. 7.

3) Bendix, R., op. cit., p. 50.

4) PK. p. 56.

5) 個人 資本主義・賤民資本主義: 交換現象이 나타난 以後로 發生한 것인

治的 資本主義(Politisch Orientier Kapitalismus)<sup>6)</sup>에서 近代 資本主義를 엄격히 區分하였다. 웨버에 의하면 單純한 資本主義는 中國, 印度, 바빌론에도 存在하였고, 古代와 中世에도 存在하였다. 그러나 이들 資本主義는 特殊한 ‘論理的 性格’을 缺如하고 있다는 것이다.<sup>8)</sup>

웨버는 近代 資本主義 精神이 지닌 ‘論理的 性格’을 가장 잘 表現해 준 벤자민 프랭크린(Benjamin Franklin)의 「젊은 商人에게 주는 助言」을 指摘하고 있다.

“時間은 金錢이라는 것을 銘心하라... 信用은 金錢이라는 것을 銘心하라... 貨幣는 원래 繁殖力과 結實力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銘心하라. 돈을 돈을 내고 그 새끼가 또 새끼를 친다... 5셀링을 굴리면 6셀링이 되고 이것을 더 運用하면 결국 100파운드까지 된다.

一身上의 信用에 관계되는 일은 비록 些少한 行爲일지라도 注意하여야 한다. 너의 債權者가 너의 망치소리를 새벽 다섯시나 저녁 여섯시에 듣는다면 그는 支拂期日에 6개월이나 延長된다 하더라도 滿足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마땅히 勞動하여야 할 時間에 그가 撞球場에서 너를 보거나 料理店에서 네 목소리를 듣는다면 그는 다음날 아침에 즉시로 支拂을 督促하

---

데 高利貸, 外國貨幣와의 交換 등에 依하면 營利를 얻는 資本主義의 形態이다(cf. 崔文換, 막스웨버의 「本主義 類型」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經濟論集 제 3 권 제 2 호 1964. p. 202ff).

- 6) 政治的 資本主義: ① 金錢, 物資를 戰爭革命, 政治的 黨派에 提供하여 分配에 參與하는 形態 ② 植民地에서 強制勞動 強制商業 獨占商業을 하여 收取하는 것 ③ 租稅請負, 官職請負, 賣官 등의 行爲에 依하여 國庫收入의 中間環取를 하는 黨利 政治團體에 非日常的인 物質調達에 依하여 黨利를 圖謀하는 形態 등이 있다. 以上の 形態는 어떤 政治的 權利에 寄生해서 營利를 얻는 資本主義 形態이다(cf. Idid., p. 202ff).

- 8) PK. p. 56.

Cf Weber. M., Religion of China, The Free Press. Glencae

고 準備되기 前에 자기 돈을 請求할 것이다...”<sup>9)</sup>

또한 웨버는 프랭크린(Franklin)이 箴言書에서 引用한 ‘내가 자기 事業에 勤實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는 王 앞에 서리라’<sup>10)</sup>는 敎訓들을 指摘하면서 이것은 프랭크린이 단순히 貨幣取得의 合理性만을 意味하지 않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웨버에 의하면 貨幣取得 그 自體의 目的에는 職業을 召命으로 하여 最善의 能力에 따라 자기의 職業에 從事하고 義務履行과 勤勉 그리고 效用성을 띤 ‘合理的 性格’이 內在하여 있음을 意味한다.<sup>11)</sup> 따라서 웨버는 프랭크린의 글 가운데서 ‘合理的 性格’을 가진 生活原理를 資本主義 精神이라고 본다.<sup>12)</sup>

에서 밝힌 資本主義 精神의 ‘倫理的’ ‘合理的’ 性格은 ‘前近代의’인 資本主義에서는 전혀 그 形態를 찾아볼 수 없다고 웨버는 말한다. 그러므로 合理的 貨幣取得은 幸福主義나 快樂主義를 斷絶시켰으며, 또한 勤實성에 立脚한 ‘職業義務’의 概念은 ‘利潤추구’ 그 自體를 生活의 目的으로 하는 倫理를 낳았다고 웨버는 主張한다.<sup>13)</sup>

웨버는 이러한 利潤追求를 金錢慾과 區別한다. 單純한 金錢慾은 人類의 歷史와 같이 오랜 歷史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sup>14)</sup> 그러한 金錢慾은 結果적으로 “利益을 위해서라면 地獄에까지라도 航海하여 듯이 타는 것조차 斜陽하지 않겠다”<sup>15)</sup>라고 말한 저 和蘭의 船長과

---

Illinois. 1951p. 248.

9) PK. pp. 48-50.

10) 잠언 22장 29절.

11) PK. p. 4.

12) Loc. cit.

13) PK. p. 54.

14) PK. p. 56.

15) PK. p. 56.



같이 本能으로써의 金錢慾 때문에 모든 것을 拋棄한다는 것은 결코 近代 資本主義에서만 特有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어떠한 規範에도 服從하지 않으려는 엉터리 活動은 어느 時代에나 存在하였다고 웨버는 力說하고 있다.<sup>16)</sup>

그러면 全近代的인 資本主義 精神의 不合理性에 對立하는 近代 資本主義의 合理性은 무엇인가? 웨버에 의하면 그것은 合理的이며 經營的인 資本使用과 合理性을 가진 資本主義 勞動組織이 支配力을 가지고 經濟生活의 方向을 決定하는 것을 意味한다.<sup>17)</sup>

그러므로 近代 資本主義는 獨特한 合理的 性格을 가짐으로써, 資本主義의 企業은 精神的 推進力을 얻을 수 있다고 웨버는 主張한다. 또한 프랭크린의 글 가운데서 指摘된 合理的이며 組織的인 '利潤追求'를 職業(使命)으로 삼는 精神的 態度를 웨버는 近代 資本主義 精神이라고 부른 것이다.

## 2. 職業의 概念

以上에서 우리는 웨버가 主張한 '資本主義 精神'의 規範과 그 特徵을 살펴왔다.

다음에 우리는 宗教改革以後 宗教的 理念의 特徵인 프로테스탄트의 日常生活에서 使用되고 있는 職業의 概念에 대하여 웨버의 理解를 中心으로 概觀코자 한다.

'職業'이란 意味로 使用되어지는 獨逸語의 Beruf는 宗教的인 거룩한 召命과 世俗的 意味가 同時에 含蓄되어 있는 概念으로서 宗教改革과 더불어 近世가 물려받은 새로운 遺産이다.<sup>18)</sup>

---

16) PK. p. 56.

17) PK. p. 56.

18) PK. p. 79.

웨버의 주장에 의하면 Beruf의 개념은 루터의 聖書 翻譯 中에 특히 舊約聖書의 經外典 예수 씨락書(Jesus Sirach)에 기록된 ‘主를 믿고 너의 職業에 머물라’<sup>19)</sup>란 句節에서 루터가 Beruf로 처음 翻譯한데 그 起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sup>20)</sup>

또한 웨버는 Beruf란 말의 歷史的 高찰을 통하여 루터의 聖書 翻譯 以前에 翻譯된 성서에서 前記의 句節에 該當된 히브리語의 melakah가 Septuagint에서는 *εργον*과 *ποιος*로 翻譯되었으며, Vulgata에서는 opus와 locus로 翻譯되었고, 佛語의 聖書翻譯에는 20節 office 21節 labour로, 스페인語의 聖書 翻譯에서는 20節 obra 21節 lugar 등으로 翻譯되어 있는데 이러한 單語들은 모두 宗教, 倫理的 意味가 缺如되어 있다고 한다.<sup>21)</sup>

또한 웨버는 宗教改革 以前의 各國語의 職業을 意味하는 單語의 語源의 考察을 通하여 스웨덴語 kaiielse, 노르웨이 및 덴마크語 kald, 和蘭語 beroep, 獨語 Berup, 英語 calling 등은 現在 使用되고 있는 바와 같은 世俗的 意味로는 使用되지 않고 있었음을 指摘하고 있다.<sup>22)</sup>

웨버에 의하면 聖書 여러 곳에서 職業의 概念이 루터의 使用과 類似한 곳을 發見할 수 있기는 하나 宗教, 倫理的 意味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

가령 舊約聖書에서 職業 概念이 매우 초기에 가장 成熟한 形式으로 나타난 것은 第二 이사야書(40-66章) 後期 思想에 나타났는데 여기서 職業의 概念은 神이 創造하시고 支配하시고 拘束하신다는

19) PK. p. 79.

20) PK. p. 79.

21) PK. p. 205.

22) PK. p. 205.

Cf. Billinge., Our Calling. p. 3.

히브리 信仰 안에서 이스라엘의 選擇과 契約된 百姓으로서의 義務와 連結되어 있음을 밝힌다.<sup>23)</sup> 그러한 義務로서 僧侶의 職能<sup>24)</sup>, 王을 섬기는 職能,<sup>25)</sup> 王宮의 官吏,<sup>26)</sup> 勞動의 管理人,<sup>27)</sup> 奴隸,<sup>28)</sup> 農夫,<sup>29)</sup> 手工業者,<sup>30)</sup> 商人<sup>31)</sup> 等으로 使用되고 있다고 웨버는 理解하고 있다.<sup>32)</sup>

또한 웨버는 新約聖書의 여러 곳에서<sup>33)</sup> 직업의 二種 概念, 즉 kalein과 klesis가 本質的으로 同義語로 使用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神으로부터의 永遠한 救援으로 불리운다는 使徒들의 宣布, 즉 福音을 通하여 神이 내리시는 請함(summons)과 擇함(Election)을 가르킴에 不過하며 世俗의 意味는 缺如되어 있다고 웨버는 理解하고 있다.<sup>34)</sup>

---

23) Cf. Calhoun. R., "Work and Vocation in Christian History", ed. by Nelson. J. O., Work and Vocation. Harper & Brothers publishers. New York. 1954. pp. 85-86.

24) 출 35:21, 느 11:22, 대상 9:13, 23:4, 26:30.

25) 삼상 8:16, 대상 4:23, 29:6.

26) 겔 3:9, 9:3.

27) 왕하 12:12.

28) 창 39:11.

29) 대상 27:26.

30) 출 31:5, 35:21, 왕상 7:14.

31) 시 107:23.

32) PK. p. 204.

33) PK. p. 207.

Cf. Calhoun. R., op. cit., p. 88.

34) 마태 22:14, 눅 14:16, 롬 8:29-30, 11:28-29, 고전 11:9, 살전 2:12, 살후 2:13-14, 벰전 1:10, 벰후 1:3-4, 10, 히 9:15, 계 17:14.

한편 웨버는 고린도전서 7章 20節 ‘各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란 말씀에서도 루터의 Beruf 起源을 찾을 수는 없다고 한다.<sup>35)</sup> 웨버의 주장에 의하면 루터는 여기서 klesis를 Ruf로 翻譯했으며, 그것을 Stand(身分, 其他 혹은 制度)란 말로 說明했다고 한다. 또한 루터는 여기서 神이 命하신 身分에 관련된 者로써 客觀的 秩序를 意味했을 뿐이라고 웨버는 말한다.<sup>36)</sup>

웨버는 또한 루터가 처음에 神秘家 요한 타울러(J. Tauler)의 影響을 받아 Ruf로 翻譯을 하였고, 후에 스스로 Beruf란 단어로 翻譯을 했으나 Beruf와 Ruf를 混沌하여 썼다고 루터를 理解하고 있다.<sup>37)</sup>

또한 웨버에 의하면 中世 가톨릭教會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가 어느 정도 職業 概念을 Officium으로 使用하기는 했지만 여기서는 全然 宗教的 意味는 없다고 한다.<sup>38)</sup>

그러므로 루터는 中世 가톨릭이 僧侶와 聖職者 그리고 平信徒를 區分하여 二元論的 倫理 概念을 強調하였으나 그와 반대로 루터는 世俗的 義務 履行을 強調하므로써 中世의인 生活觀은 粉碎되었고 이 Beruf의 새로운 概念은 철저한 改革思想의 產物이 되었다.<sup>39)</sup>

35) 루터는 고전 7:20의 Klesis를 Ruf로 翻譯했다고 웨버는(cf. PK. p. 208) 주장했다.

36) PK. p. 208.

37) PK. pp. 188-186.

38) 라틴語는 職業의 意味로 쓰이는 officium과 munus 그리고 professio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宗教的 意味를 缺如한 單純히 世俗的 意味로만 使用되었다고 한다. (cf. PK. p. 205)

39) cf. PK. p. 80.

Cf. Brunner. E., Christianity and Civilization(韓譯)

Vol. 2. 1949. p. 88ff.

그러나 웨버는 주장하기를 루터는 聖書翻譯에 있어서 傳統主義 思想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요한 타울러(J. Tauler)에 比하여 退步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1518年에서 1530年에 이르는 동안에는 聖書を 그 時 그 時 자기의 精神的 態度에 따라서 解釋을 하였다고 한다.<sup>40)</sup>

또한 웨버는 理解하기를 루터는 職業의 概念에 있어서도 傳統主義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神이 附與한 職業과 身分에 머무를 것과 인간의 地上生活은 자기에게 賦與된 社會的 地位를 離脫하지 않을 것을 強調하였다고 한다.<sup>41)</sup> 또한 웨버에 의하면 루터의 傳統主義는 經濟生活에도 나타나서 루터는 活動主義를 警戒하고 神에 對한 無條件인 服從과 所屬된 環境에 대하여 無條件 適應을 要求하였으며 職業의 變更을 원치 않았다고 웨버는 理解하고 있다.

그러므로 루터의 經濟的 傳統主義는 資本主義 發展에 內面的 關係는 姑捨하고 宗教的 原理와 職業活動과의 適合性에 對한 基礎조차 形成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웨버의 主張이다.<sup>42)</sup>

### 3. 職業의 倫理的 性格

以上에서 살펴온 바와 같이 웨버는 루터의 職業概念이 傳統主義를 벗어나지 못한 生活觀이었으므로 資本主義 精神과는 內面的 關係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웨버는 社會的 活動과 利潤追求에 專念하여 온 칼빈주의에서 兩者의 適合成을 찾았다.<sup>43)</sup> 웨버에 의하면 칼빈의 豫定論이 中産階級の 禁慾的인 職業義務와 非人格的인

---

40) cf. PK. p. 84.

41) cf. PK. p. 85.

42) PK. p. 85.

43) PK. p. 98ff.

利潤追求의 精神을 낳았다고 한다. 以下에서 우리는 웨버가 兩者의 適合成을 說明하여 온 論理的인 過程을 살펴보기로 한다.

웨버에 의하면 칼빈은 人間의 職業活動에 있어서 神의 榮光을 위하여 Invocation으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 Pervocation으로 옮겨갔다는 것이다. 웨버는 그 變化를 뒷바침해 주는 神學的 理論이 바로 칼빈주의의 二重 豫定論이라고 보았다.<sup>44)</sup> 人間의 運命은 絶對的인 神의 主權아래 豫定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主義者들에게 있어서는 救援의 確信을 얻는 것이 至大한 關心事가 되었다. 칼빈主義者들은 救援의 事實을 確認할 수 없을 때에 不安의 結果를 낳게 된다. 여기서 人間은 심한 孤獨을 겪게 된다.<sup>45)</sup>

웨버는 人間의 孤立化 理論에 대한 두가지 중요한 歷史的 結果를 指摘하고 있다. 첫째는 淸教徒의 禁慾主義 思想이다. 이것은 淸教徒의 모든 感覺的인 幸福主義나 또는 文化와 宗教의 感覺主義的 要素를 否定하는 淸教徒의 生活態度의 基盤을 마련하였다. 둘째는 淸教徒의 背景이 되는 他界的인 個人主義와 厭世主義的인 排他性이 된다.<sup>46)</sup>

웨버는 그 한 例로서 淸教徒 文學의 代表的 作品인 번연(John Bunyan)의 '천로역정'(Pilgrims Progress)을 들고 있다. 基督者가 滅亡의 都市를 떠나 天國을 向해 가는 巡禮의 途上에서 妻子가 매달려 울지만 그는 손으로 귀를 막고 "生命, 永遠한 生命!"을 부르짖으며 앞으로 向해 가는 모습을 웨버는 引用하여 說明하고 있다.<sup>47)</sup>

人間은 옛부터 豫定된 自己의 길에 同伴者는 없다. 友人, 牧師,

44) cf. PK. 98.

45) cf. PK. p. 105.

46) cf. PK. p. 105.

47) PK. p. 107.

聖禮典, 教會도 所用이 없다. 아무도 神에 依하여 決定된 運命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神도 所用이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오직 澤함을 받은者만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이다.<sup>48)</sup>

웨버는 칼빈주의 時代에 있어서 人間의 孤立化에서 오는 心理的 反影으로 誕生된 個人主義와 社會組織과의 結合을 칼빈主義者들에 의한 現世的 社會活動의 結果로 看做한다.<sup>49)</sup>

그러면 不安과 孤獨 속에 허덕이는 칼빈主義者들이 무엇 때문에 社會的 活動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는가? 그들의 社會的 活動의 根據는 자기들이 가진 不安과 孤獨을 解決함이었다고 웨버는 말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참된 信仰의 터전 위에서 不斷히 職業義務를 履行하는 길 이외에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의 社會活動의 目的은 兄弟愛나 人間性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만 救援의 確信을 얻기 위해서 活動하는 合理化된 非人格의인 社會奉仕를 하는 것이 칼빈主義者들의 論理的 特徵이었다고 웨버는 主張한다.<sup>50)</sup>

또한 웨버에 의하면 칼빈主義者들은 不斷한 職業義務를 社會活動으로 하면서도 한순간이라도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는 質問은 '選擇을 받았느냐 버림을 받았느냐'하는 兩者擇一의 岐路에서 自己를 試驗해야만 했다는 것이다.<sup>51)</sup> 이러한 懷疑에 대하여 칼빈 自身은 自己가 神의 道具라는 것을 確信하였기 때문에 問題되지 않았지만 칼빈主義者들에게는 '救援의 確實性'은 絶對的으로 중요한 것이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豫定論이 主唱되고 있는 곳에서는 모두가 '擇

48) cf. PK. p. 104.

49) cf. PK. p. 108.

50) cf. PK. p. 107.

cf. Troeltsch. E., The Social Teaching of the Christian Churches. London Allen & unwin 1931. p. 589.

51) cf. PK. p. 115.

함을 받은者'의 '員임을 確認할 수 있는 標識이 있느냐 없느냐하는 問題가 한시라도 念頭에서 사라지지 않았다고 웨버는 말하고 있다.<sup>52)</sup>

그래서 人間은 現世의 社會的 活動을 위하여 盡力할 職業을 選擇하여 그것을 神의 召命으로 不斷한 職業勞動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고 한다. 그들은 이 職業勞動에 精進하여 自己의 成功을 通하여 自己의 召命이 '有效한 召命'(Effectual calling)이며, 自己의 信仰이 '有效한 信仰'(Fides efficax)인 것을 保證하지 않으면 안되었다고 웨버는 말하고 있다.<sup>53)</sup> 善行이 救援을 얻지는 못한다. 그러나 믿는者에게 神이 自己를 救援하셨다는 選擇의 表徵은 必要한 것이다. 그것은 救援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滅亡의 恐怖에 關한 煩悶을 除去하기 위한 技術的 手段이었다고 웨버는 主張한다.<sup>54)</sup>

칼빈主義者들은 當初에 社會的 問題에는 無關心하였으나 政治的 發達過程에서 그들은 中産階級을 形成하고 社會的 變形은 칼빈주의의 經濟倫理의 重要한 特徵을 낳게 되었다<sup>55)</sup>는 것이다.

이와같이 中産階級의 經濟倫理에 礎石이 된 것은 칼빈主義者들의 勞動과 利潤追求에 때를 같이 하여 歷史的으로 非難되고 禁止되어온 利子의 行爲(高利貸金)가 칼빈주의 時代에 이르러서 合法化되므로서 拍車가 가해졌다고 웨버는 主張한다.<sup>56)</sup>

또한 所有에 대한 칼빈主義者의 態度는 청지기(Steward)에 불과했으므로 財貨의 獲得과 利益은 社會的 善行과 公益을 위하여 使

52) cf. PK. op. 111.

53) PK. p. 114.

54) PK. p. 115.

55) cf. PK. p. 109.

56) cf. PK. p. 190.

cf. Weber. M.. Wirtschaftsheschichte(韓譯) p. 343ff.



用되었다. 여기에 生産的 信用이 일어났다는 것이다.<sup>57)</sup>

이와같이 칼빈主義者들은 職業活動의 義務心에서 離脫하지 않고 神의 道具로서 不斷한 活動을 할 때 職業에 대한 熱意는 높아지고 禁慾的 戒律에 따라 消費는 節約되고 節約은 貯蓄化되어 産業이 合理化되었다는 것이 웨버의 見解이다.

또한 웨버는 그의 論理的 根據를 立證하기 위하여 칼빈主義者들이 共同體 안에서 效果的인 行爲의 指針書로 되어온 文獻을 찾았다. 그리하여 그는 17世紀 英國 淸教徒의 牧師 박스터(Richard Baxter)의 代表的인 冊 「Christian Directory」와 「Saints Everlasting rest」에서 淸教徒의 한 形態를 본 것이다.<sup>58)</sup>

웨버는 박스터(R. Baxter)의 文書에 대한 分析에서 靈魂을 해치지 않는 한에서 財貨의 所有와 利潤追求의 正當化를 主張했음을 指摘했다.<sup>59)</sup> 그리고 ‘일하기 싫은 者는 먹지도 말라’<sup>60)</sup>는 바울의 勸告를 引用하면서 富者도 貧者와 같이 神의 榮光을 더하기 위하여 그의 召命 안에서 일해야 한다는 것을 強調했다고 한다. 또한 웨버에 의하면 박스터는 貧者의 懶怠를 指彈하고 聖徒의 永遠한 休息은 彼岸의 世界에 있다고 하면서 現世的인 時間의 浪費를 最惡으로 規定했다는 것이다.<sup>61)</sup> 또한 칼빈主義者들은 人間의 情緒의인 關係조차 偶像視하여 親한 親舊의 關係에까지 操心하라고 하였음을 웨버는 指摘하고 있다.<sup>62)</sup>

그리하여 칼빈主義者들은 中産階級の 倫理的 特徵인 勤勉, 儉

57) cf. Troeltsch. E., op. cit., pp. 644-645.

58) cf. PK. p. 156.

59) cf. PK. pp. 157. 161.

60) cf. 살후 3:10.

61) cf. PK. p. 159.

62) cf. PK. p. 262.

素, 節約, 正直의 禁慾的 戒律에 따른 一切의 精神과 肉體的 勞動을 強調하는 職業義務(Berufspflicht)의 思想이 生活을 支配하게 되었다는 것이 웨버의 主張이다.<sup>63)</sup>

이와같이 禁慾的 戒律에 따라 快樂은 抑制되고 活動으로 獲得한 것이 投下資本으로 使用되어 生産의인 用途를 促進시켰다. 또한 칼빈주의의 合理的 禁慾主義 精神은 營利를 使命으로 생각하는 近代 企業家의 特徵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勞動을 使命으로 認識하는 近代 勞動者의 特徵이 되었다고 웨버는 主張한다.<sup>64)</sup>

또한 칼빈주의의 禁慾精神은 近代 資本主義 뿐만이 아니라 近代 文化 全體의 構成要素의 하나인 職業觀念을 基礎로 하는 合理的 生活態度를 낳았다고 웨버는 強調한다.<sup>65)</sup>

## IV. 웨버의 論題에 對한 批判

### 1. 宗教的 基礎의 分析

아래 「그림 I」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웨버의 論題를 形成하고 있는 構造에서 우리는 宗教的 基礎가 된 루터의 職業概念과 칼빈의 豫定論을 分析하고 中産階級의 禁慾主義 倫理가 낳은 利潤追求와 商業倫理를 칼빈의 社會的 휴머니즘 立場에서 批判하려고 한다.

---

63) cf. PK. p. 54.

64) PK. pp. 8. 58. 157.

65) PK. p. 159.

프로테스탄트 信 仰	商 業 倫 理 禁 慾 主 義	資 本 主 義 合 理 主 義
루터의 召命 칼빈의 豫定論	⇒ 貯 蓄 ⇒	商 業 企 業

그 림 I<sup>1)</sup>

## 1) Beruf의 概念

웨버는 루터의 職業概念에 대한 研究에서 社會的 意義를 說明한 것에는 대체로 正當하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職業觀의 宗教的 理解에는 不適合한 점을 內包하고 있다<sup>2)</sup>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루터의 職業概念을 理解함에 있어서 基本的으로 범한 誤謬를 指摘하고자 한다.

첫째, 웨버의 主張에 의하면 루터는 1518-1530 年間に 中世의인 傳統主義의 精神에 사로잡혀서 聖書 翻譯은 那時 那時의 精神的 態度에 따라서 翻譯하였기 때문에 Beruf의 概念을 Ruf의 概念과 混沌하여 썼다고 한다. 그와 같은 웨버의 主張은 歷史的 事實에서 볼 때 不適合한 面을 보여준다. Beruf의 概念은 루터의 生涯中 成熟期의 改革思想의 產物이라고 볼 수 있다. 루터는 1515年-1516年에 행한 로마서 講解 가운데서 中世紀 修道院 生活의 理想的 이미지에 對한 矛盾性을 言及하기 시작하면서 'Vocatio'나 'Beruf'라는 말이 루터의 自作物 가운데서 점점 明白해 졌으며 Beruf란 말 자체는

1) Means. R. L., "Webers Thesis of the Protestant ethic."

The Journal of Religion. Vol XLV Jan. 1965. p. 6.

2) 李章植. 基督教思想史. 第2卷. 大韓基督教書會. 1966. p. 281.

1522년 以前에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은 루터의 1522년 「De Votis Monasticis」에서 神의 命命, 사랑, 自由, 믿음 그리고 理性에 矛盾되는 修道院 生活의 반대에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 Beruf나 Vocatio의 思想은 1521년에 나온 論文 「크리스천의 自由와 善行에 關하여」에서 더 明白하게 取扱되어 있다.<sup>3)</sup> 다음으로 웨버는 Beruf의 概念을 루터가 全的으로 타울러 (J. Tauler)는 平信徒를 僧侶나 聖職者와 平等하게 神의 影像이 주어졌다고 하여 平信徒의 身分을 強調한 것은 事實이나 僧侶는 高次的인 거룩함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 것을 보아 타울러 (Tauler)는 平信徒나 僧侶, 聖職者의 地上的 身分 (Status) 그 自體를 하나의 誠命 (Ladung)이나 召命 (Ruf)이라고 말한 것에 불과했음을 指摘할 수 있다.<sup>4)</sup>

셋째로 웨버는 루터의 Beruf 起源을 舊約의 經外典 예수 씨락書 (11:20-21)에서 찾고 있으며, 고린도전서 7:20의 말씀에서 起源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 왜냐하면 後者の 경우는 倫理的 性格이 缺如된 完全히 外的 地位만을 意味했을 뿐이라고 主張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指摘할 수 있는 것은 웨버가 말하는 倫理的 性格 내지는 內的意味이다. 웨버는 루터의 職業概念을 너무나 '主觀的 意味'로 解釋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理

3) 池元溶. "루터의 職業觀". 延世春秋. 第450號

cf. Hall, K., "Die Geschichtesdes Wortes Beruf": Gesammelte Aufsätze Zur Kirchengeschichte (Tubingen, 1928) S. 189.

Brunner, E., The Divine Imperative. Lutter Worth Press. London, 1951. p. 613.

4) cf. Hall, K., op. cit., S. 205ff.

Calhoun, R. L., "Work and Vocation in Christian History." ed. by Nelson, J. O., Work and Vocation p. 106.

由로서는 웨버가 新칸트學派에 속하는 프로테스탄트(특히 릿츨)의 影響 아래서 宗教的이며 倫理的 課題(Religio-Ethical Problem)을 자기의 '至上命令'(Categorical imperative)으로 삼고 人間學的인 價値觀念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窮極的인 人間의 義務履行에 있어서 外的 表現이나 外的 地位보다는 外的 意味의 追求가 더 중요시 되었을 것이다.<sup>5)</sup> 그러한 關心에서 볼 때 웨버는 고린도전서 7:20이 말씀에 대하여 루터의 福音에 根據한 說教에서 Klesis를 Beruf로 翻譯하고 外的 地位나 身分(stand)으로 解釋한 데 못마땅 했을 것이다. 그래서 웨버는 루터가 福音에 根據하지 않은 前記 經外典 解釋에 Beruf의 起源을 돌림으로써 誤謬를 범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sup>6)</sup> 그러므로 우리는 Beruf의 概念을 고린도전서 7:20의 말씀 Klesis를 루터의 福音에 기초한 聖書의 翻譯에 起源이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sup>7)</sup> Beruf의 概念은 철저히 福音의 解釋에 根據하고 있는 福音의 부르심을 의미한다.

---

5) cf. Honigsheim. p., "Max Weber: His Religious and Ethical Background and Development." Lewis and Clark College Portand. pregon from "church History" Vol. X IX 1950. pp. 10, 22, 23.

cf. Lyman. E. E., "Ritschl's theory of Value-Judgements." The Journal of Religion. Sep. 1925. p. 500ff.

6) 이와같은 誤診은 Kall Hall이 루터의 직업개념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倫理的 課題의 照明 아래서 自然法(혹은 道德性)에 基礎하여 福音보다 (in Gospel)는 內的 召命(inner calling)을 더욱 強調하여 誤診을 범했던 바와 같다는 것을 指摘할 수 있다.

cf. Hall. K. op. cit., S. 190.

Barth, K., Church Dogmatics 111/4, T & T. 1961. p. 601.

7) Luther, M. W. A. D. B., Bd. 7, S. 104.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며 또한 위로부터 온다. 이것을 道德的 觀念에 根據하여 內的 使命과 同一視 할 수는 없다.<sup>8)</sup> 그러므로 인간의 外的 地位를 意味하는 Beruf는 福音を 통하여 神이 具體的인 人間을 子女로 부르심을 의미한다. 따라서 神으로부터 附與받은 各自의 職務(office)나 身分(station)은 단순히 人間 生活의 方便(Job)만은 아니다.<sup>9)</sup> 루터는 神으로부터 人間에게 附與하는 天職을 解釋하는데 그것이 하늘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이며 神을 위해서보다는 이 세상에 속하는 이웃과 共同體에 對한 奉仕로 向하는 것을 意味한다.<sup>10)</sup>

## 2) 豫定과 自由意志

웨버에 의하면 資本主義가 발달된 프로테스탄트의 諸地域은 칼빈주의가 支配하고 있었다고 한다. 또한 칼빈주의의 生活을 支配하고 있는 特殊한 理由는 二重 豫定論이라고 理解했다. 웨버는 豫定論의 論理的 根據를 「基督教 綱要」나 그의 다른 著作에서 理解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 理由를 「웨스트민스터 信仰告白」에서 철저화된 二重 豫定論을 引用하여 論理를 構築하였다.<sup>11)</sup>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問題를 提起할 수 있다. 첫째는 웨버가 칼빈주의에서 重要視되는 豫定論을 「웨스트민스터 信仰告白」에서만 단순히 引用하여 一般化 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豫定論이 好戰的 教會(Ecclesia Militans)의 方便으로 制定되었으며

8) cf. Barth, K., op. cit., p. 603.

Brunner, E., op. cit., p. 198ff.

9) 루터는 Beruf나 Vocatio를 非信者의 일일까지 連結시키지는 않았다. cf. Wingren, G., op. cit, p.2.

10) cf. Ibid. p. 10.

11) cf. Weber, M. PK. p. 99.

칼빈의 精神과는 그 意圖가 어긋났으므로 引用된 資料 自體가 矛盾性을 지니고 있다. 둘째 경우는 웨버가 論理안에서 中心이 된 信仰體系를 너무나 한정된 칼빈주의에만 適用함으로써 自由意志를 主唱하는 알미니안主義가 그 地域에 있는 것을 看過해 버린 誤謬를 범하고 있다. 첫째의 경우에서 웨버는 勿論 自己는 칼빈을 研究한 것이 아니라 칼빈주의를 研究하였다고 辨明으로 始作했지만 問題는 칼빈주의가 칼빈을 떠나서는 理解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칼빈주의를 칼빈의 後期 作品에서 理解하려고 하는 이들에게는 豫定の 二重性을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칼빈의 研究家들에 의하면 「基督教 綱要」와 그의 聖書註釋과 其他의 論文들에서 聖書의 記錄된 敎訓이기 때문에 豫定 敎理를 가르치기는 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信仰에 위험한 것이 될 수 있으므로 沈默을 지켰다고 한다.<sup>12)</sup> 우리는 여기서 칼빈의 豫定論과 「웨스트민스트 信仰告白」의 史的 位置를 밝힘으로써 웨버의 理解와 比較를 삼을 수 있을 것이다. 豫定論은 「基督教 綱要」初版에서 獨立된 項으로 取扱 論述되지 않고 敎會에 관하여 말할 때 ‘選擇받은 者의 무리’라는 말로 表示하였으며 그외에 功績思想의 不定, 救贖의 확실성, 神의 榮光등을 말할 때 間接적으로 言及하였을 뿐이다.<sup>13)</sup> 그리고 1536년 칼빈이 牧會한 「제네바 敎會의 信仰告白」과 「小要理問答」에서는 豫定の 敎理를 除外해 버렸다.<sup>14)</sup> 1539년 「基督教 綱要」第二版에서는 全 17章中 第 8章을 豫定에 관한 論述에 適用하였다. 1559년 「基督教綱要」決定版에서는 二重 豫定の 理論을 神學的으로는 插入하고 있지만 信仰告白과 禮拜의 部分으로 만들어진 信仰 問答에서는

12) 李章植, op. cit., p. 102.

13) 金景淵, 칼빈의 生涯와 그 神學思想, 新敎出版社, 1965 p. 207.

14) 李章植, op. cit., p. 102.

이 敎理를 말하지 않았던 것이다.<sup>15)</sup> 그러므로 칼빈은 「基督教綱要」에서 選擇과 豫定の 敎理를 다루기는 하였지만 豫定 思想은 칼빈의 神學體系에서 根幹을 이루고 있는 出發點이 아니고 칼빈이 神의 恩寵과 主權 (Sovereignty)을 말할 때 到達한 論理的 歸結點이었다.<sup>16)</sup> 칼빈 自身은 二重 豫定을 論理化 하는 데는 消極的이었지만 이 敎理를 反對하는 사람들에게는 辨證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sup>17)</sup> 칼빈은 自身の 對敵者 Pigijs Bolsec 그리고 Castellio 등의 人士들과의 論爭에서 또는 칼빈의 追從者들에 의하여 徹底化 되었다.<sup>18)</sup> 칼빈 自身은 二重 豫定論에 관한 敎理에 대하여 극히 삼가 했음을 미루어 보아 이것이 1647년 영국에서 「웨스트민스터 信仰告白」의 作成에 들어가서 18, 19世紀를 通하여 好戰的 敎會의 발판이 되었다는 것은 칼빈의 根本的인 意圖의 模倣이 아님을 알 수 있다.<sup>19)</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버는 二重 豫定論을 칼빈과 칼빈주의의 根幹인 듯이 생각하므로써 칼빈주의 精神에 異質的인 要素를 지닌 「웨스트민스터 信仰告白」에서 引用하여 論理를 構築한 것이다.

다음으로 웨버는 프로테스탄트의 諸敎派(淸敎徒, 敬虔主義, 監理敎, 浸禮敎)가 프로테스탄트의 共同體 안에서 禁慾的 倫理를 實踐하여 왔으므로 비단 칼빈주의만이 禁慾主義를 實踐한 것이 아니었

15) Ibid., p. 320.

16) Calvin, J., Institutes., III. 21/1f.

17) Ibid. III. 24/5.

cf. 池元溶, “예정론에서 본 루터와 칼빈” 神學研究 8輯, 韓國神學大學 神學會, pp. 58-60.

18) cf. Calvin, J., Concerning the Eternal Predestination of God. The Camelot Press London, 1961, 緒文

19) cf. 李章植, op. cit., p. 322.



음을指摘하므로서 우리는 웨버의 說明假設(Explanatory hypothesis)을 세운 理論을 액면 그대로 받아 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宗教改革以後의 右傾에 속하는 많은 教派들이 豫定論에 대하여 강하게 反對하여 온 것을 우리는 記憶한다. 또한 프로테스탄트의 左傾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教派가 後期에는 少數에 不過했으나 점차로 活氣를 띄우며 칼빈주의 地域에서 多數의 教派를 形成하여 왔다. 이 系列에 속한 教派는 反選擇과 反豫定을 主唱하여 온 알미니안派的 프로테스탄티즘이었음을 우리는 記憶할 수 있다.<sup>20)</sup>

웨버가 主張한 칼빈주의가 美國에서는 오래가지 못했다. 뉴잉글랜드(New England) 안에서는 아주 일찍부터 칼빈주의의 敎理는 分離되고 있었다.

18세기 中葉부터 美國에서는 칼빈주의에 대한 反對가 일어났는데 그 中에 代表的인 教派로서 擡頭한 알미니안派는 自由意志를 強調하고 豫定을 否定하였다. 알미니안의 傳統은 프로테스탄티즘의 큰 教派였으며 因果論的 豫定論은 그들의 傳統에 適應될 수 없었다.<sup>21)</sup>

그럼에도 不拘하고 웨버의 理論을 贊成하는 學者들과 함께 美國의 發達된 資本主義를 칼빈주의의 影響이라고<sup>22)</sup> 主張하는 웨버의 理論은 全的으로 首肯되기 어려울 것이다.

---

20) cf. Smith. R., (ed) American Christianity: Interpretation and Documents.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 1960. Vol.1 pp. 288-93.

21) Ibid., loc. cit.

22) Fullerton은 wall street가 豫定論의 結果로 되어진 것이라고 한다. cf. Fullerton. K., "Calvinism and Capitalism": An Explanation of the Webers, Thesis: Harvard Theological Review XXI. 1928. p. 194.

## 2. 칼빈의 社會的 휴머니즘

### 1) 中産階級の 經濟倫理

勤勉, 儉素, 節約, 正直을 內容으로 하는 現世的 禁慾主義가 칼빈주의의 所産인가? 中産階級이 社會的 風潮에 칼빈은 과연 웨버가 主唱하는 資本主義의 色彩를 띤 經濟倫理를 實踐하였는가? 쾰발트(Sombart)는 中産階級の 德行인 勤勉과 節約의 思想은 칼빈주의 時代에 形成된 倫理가 아니라 이미 古代哲學이나 中世 가톨릭에서 實踐되어 온 것이라고 한다. 즉 스토의 思想(특히 Seneca, Cicero, Marcus Aurelius)에서 이미 이러한 德行은 謹行되어 왔으며, 더구나 그들의 節約思想은 로마 가톨릭 教會의 經濟思想에 關한 文獻을 形成하는데 決定的인 要因이 되었음을 指摘했다. 그러므로 中世期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에 의하여 非難되어 온 浪費, 放蕩, 怠慢, 그리고 不正直이 中産階級の 節約에 뚜렷한 刺戟을 주었다고<sup>23)</sup> 指摘하므로써 쾰발트는 웨버의 論題에 批判을 가했다. 中世期 經濟倫理의 중요한 要素는 公平한 價格의 倫理, 貪慾罪에 대한 非難, 高利貸金의 禁止, 그리고 機能的인 社會觀을 維持하는 데 있었다. 여기에 하나 더 添附할 것은 宗教的 原理를 떠난 技術者의 驕慢과 商品産業에 많은 時間을 바치고 있는 異教的인 要素가 자라나고 있었다.<sup>24)</sup>

이미 指摘된 中世에 公平價格의 理論은 生産者에게 다만 勞動의 對價로 支拂되었고 生活 가운데서 自己 身分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주어지는 것에 불과하다. 公平價格은 競爭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生産者의 要求에 의하여 決定되었으므로 需要와 供給의 原理가 施

23) cf. Sombart, W., The Quintessence of Capitalism, T. F. Unwin, Ltd London, 1915. p. 224.

24) cf. Ibid., p. 19.

行되기는 어려웠다. 그러므로 公平價格보다 많은 價格을 要求하는 것은 貪慾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中世의 僧侶들은 理論上으로만 貪慾을 규탄하였을 뿐이며, 實生活에서는 貪慾이 그대로 實踐되고 있었다. 또한 利潤追求는 教會法과 民法上에도 禁止되었으나 실제로 高利貸金의 禁止는 다른 形式으로 은밀히 實踐되고 있었다. 修道院과 教皇의 稅納官吏들은 일찍부터 法網을 뚫고 돈놀이를 했다. 사실상 修道院은 일찍부터 金錢貸付所 役割을 하고 있었다.<sup>25)</sup> 社會의 機能的 概念은 모든 사람이 神으로부터 附與받은 自己의 場所에서 만족스럽게 勞動하도록 維持함으로써 社會的, 經濟的 分裂을 막고 플라톤(Platon)과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理論에 基礎한 階級化된 社會組織을 構築함으로써 安定된 秩序를 維持하기 위하여 社會的인 保守主義가 強化되었다.<sup>26)</sup>

그러한 中世의 社會相을 背景으로 하여 16世紀에는 宗教鬭爭, 列強諸國의 軍事的 鬭爭과 百年戰爭으로 인한 여러가지 社會的 要因의 變革과 中世的인 經濟秩序는 새로운 企業精神에 물든 中產階級の 經濟的인 繁榮으로 經濟的 社會構造의 基盤이었던 永遠한 秩序는 흔들리고 있었다. 당시 제네바는 國際的 産業都市로써 그 繁榮이 絶頂에 이르고 있었다. 經濟生活은 市民의 生活을 潤澤하게 했으며 浪費와 奢侈는 中世的인 禁慾으로부터 解放되어 奢侈와 貪慾으로 물들고 宗教改革으로 로마 가톨릭 教會의 軋轢과 分裂 그리고 教會의 荒廢로 社會는 沒落과 墮落의 길을 걷고 있었다.<sup>27)</sup>

25) cf. Ehrenberh. R., Capital and Finance in the Age of the Renaissance, London, 1928, p. 42ff.

26) cf. Harkness. G., Christian Ethics(韓譯). 基督教書會. p.207.

27) cf. Bieler. A., The Social Humanism of Calvin. John Knox Press Geneva. 1961. pp. 28-29.

cf. 鄭賀恩, “갈빈의 倫理와 現代의 解釋” 神學研究 9輯 韓國神學大學 神學會. pp. 96-126.

이러한 時點에서 칼빈은 모든 生活의 行爲를 儉素, 正義, 敬虔의 三大德<sup>28)</sup>으로 制限하고<sup>29)</sup> 官能主義와 享樂主義에 사로잡힌 市民生活의 惡德과 紊亂한 社會風潮를 淨化하기 위하여 市民의 道德的 訓練을 強化하였다. 칼빈은 三大德의 實踐을 스토익의 德行을 實踐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勤實함과 義로움과 敬虔으로 世上에 살라’<sup>30)</sup>는 말씀에 根據한 德의 實踐에 있다고 부르짖었다. 칼빈은 德行을 神의 命令에 服從하여 自己否定을 통하여 이룩되는 것이라고 主張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弟子들에게 가르치신 自己否定을 意味한다.<sup>31)</sup> 칼빈에 의하면 信者의 德行이 神의 命令에 服從하여 自己否定을 통하지 않고는 무서운 惡을 行하면서도 그것을 부끄러워 하지 않고 오히려 功積과 榮譽의 慾望 때문에 惡用된다고 말했다.<sup>32)</sup> 그러므로 칼빈은 스토익의 德行을 反對하고 自己否定을 通하여 奉仕와 사랑으로써 이웃에게 利益을 줄 수 있는 人間의 義務를 強調하였다.<sup>33)</sup>

칼빈은 共同體의 連帶意識下에서 모든 物質的 財貨가 이웃을 돕

28) 謹慎은 現世의 物質을 淨潔과 儉素하게 使用하며, 貧困 가운데서 참고 견디는 純潔과 절제를 意味한다.

正義는 (롬 13:7(正義와 公評의 關係)에 근거함) 各自가 自己의 것으로 公評의 任務를 意味한다.

敬虔 世上의 모든 不淨으로부터 分離될 때 神의 聖潔 속에 結合되는 것을 意味한다(Institutes. III. 713f).

29) Institutes. III. 713.

30) 디도서 2:12.

31) Institutes. III. 712.

32) Institutes. III. 712.

33) Institutes. III. 715.

기 위하여 神으로부터 附與받은 청지기 (Stewardship)에 不過하므로 委託받은 財物은 사랑의 法으로 支配되어야 한다고 強調한다.<sup>34)</sup>

칼빈은 또한 共同體內에서 貨幣에 대한 積極的인 價値를 附與하였다. 貨幣는 神의 攝理의 道具로서 人間 社會의 福祉와 連帶性을 이루어 나가는 手段이라고 強調하였다.<sup>35)</sup> 그러므로 칼빈은 또한 共同體 안에서 富의 循環과 貨幣의 相互交流를 이스라엘의 만나 分配論에 依據하여 富者와 貧者間의 相互平等을 강력히 主張하였다.<sup>36)</sup> 칼빈은 이스라엘의 만나의 分配를 使徒 바울이 ‘많이 거둔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sup>37)</sup>는 말씀의 例로써 富者는 貧者의 牧師라고 불렀고 貧者는 富者의 信仰과 사랑을 試驗하기 위하여 神으로부터 富者에게 보내졌다<sup>38)</sup>고 力說하였다. 칼빈은 富者와 貧者間의 富의 平等과 公正한 分配를 위하여 國家는 政治的 使命으로써 經濟를 調整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國家의 權力이 生産者를 獨占하려고 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經濟循環을 위하여 調整者의 役割을 하는 것이다. 國家가 調整者의 役割을 하지 않을 때 蓄財나 獨占은 商品의 循環을 妨害하며, 浪費는 社會로부터 富를 剝奪하게 된다. 財貨의 循環과 生産의 새로운 資源을 위한 貯蓄에 대하여 칼빈은 非難하지 않았다.<sup>39)</sup> 제네바에 ‘奢侈

---

34) Institutes, III. 715.

35) 칼빈은 古代로 내려오는 物質에 對하여 敵對視하는 異敎的인 그릇된 思想을 排擊하고 精神과 物質의 價値에 대한 二元論的인 對立을 克服하였다(cf. Institutes, II. 715. Bieler, A., op. cit., p. 30).

36) cf. Bieler, A., op. cit., p. 33.

37) 고후 8:15.

38) Bieler, A., p. 33.

39) Ibid. pp. 39. 41.

禁止法'은 그러한 關心事에서 消費를 制限하고 社會內에서 富에 相互扶助를 實行하기 위함이었다.

토니(R. Tawney)는 中産階級の 社會를 올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하여 努力한 칼빈의 面貌를 살피면서 19世紀의 無産階級 大衆의 굶주림을 채워주기 위하여 마르크스(K. Marx)가 그의 理論을 가지고 實踐한 것과 같이 16世紀에 中産階級の 育成을 위하여 努力한 칼빈은 比較할 만한 事實이라고 陳述했다.<sup>40)</sup>

우리는 以上에서 칼빈이 實踐한 中産階級の 經濟倫理의 考察에서 資本主義 組織이 가지고 있는 經濟行爲의 特徵 즉, ① 利潤追求(財貨의 追求) ② 自由放任의 個人主義 ③ 經濟的 合理化(㉠ 完全한 計算精神 ㉡ 諸般 經濟要因에 대한 數學的 計算)란 經濟生活의 原理와 현격한 差異를 보게 된다.<sup>41)</sup> 우리는 칼빈이 社會內에서 人格的 責任성과 貧富間의 相互扶助와 連帶意識을 強調한 점으로 보아 오히려 그를 '人格的 社會主義'나 '社會的 人格主義'를 形成하려는 意圖이었음을 알 수 있다.<sup>42)</sup> 그러므로 우리는 칼빈의 經濟思想을 資本主義라고 부르기보다는 오히려 社會的 휴머니즘이라고 보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sup>43)</sup>

## 2) 貨幣流通과 利子

資本主義 精神에 基本的 條件이 되는 利潤追求가 지난 모든 歷史를 通하여 禁止되어 온 高利貸金(usury)이 칼빈에 의하여 解除됨

40) Tawney. R. H. Religion and The Rise of Capitalism, Penguin Books, West Drayton, Middlesex, London, 1948. p. 120.

41) Sombart. W., The Jews and Modern Capitalism, The Free Press. Glencoe, luinois New youk. 1951. p. 160.

42) Bieler. A. op. cit., p. 62.

43) Ibid. p. 65.

으로써 칼빈은 資本主義 成長에 貢獻을 하였다든 웨버의 主張은 歷史的 背景으로 볼 때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칼빈은 福祉社會 建設을 위한 社會連帶意識下에서 不當한 高利貸金을 非難하고 健全한 貨幣의 流通을 主張했음을 볼 수 있다.

高利貸金의 非難에 대한 歷史的 根據는 많은 곳에서 發見된다. 그것은 聖書의 여러 곳에서도 볼 수 있다.<sup>44)</sup>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政治學」에서 貨幣는 非生産的이며 貨幣의 貸付로 營利를 取하는데 대한 不當性を 指摘하여 왔다.<sup>45)</sup> 中世 가톨릭에서는 利子 禁止의 思想이 아리스토텔레스가 主張한 貨幣의 本質에 대한 非生産性的의 理論에 基礎하여 中世 가톨릭은 教會會議에서 法令으로 禁止되었고<sup>46)</sup> 數世紀間 教會會議나 世俗當局에서 再強調되어 왔다.<sup>47)</sup>

44) 레 25:26-7, 신 23:19, 시 15:5, 55:11, 겔 22:12, 눅 6:35.

45) 아리스토텔레스는 高利貸金의 不當性を 다음과 같이 記述하였다.

「...가장 憎惡해야 할 것은 高利貸金이다. 그것은 貨幣 그 自體로부터 利子を 取하는 것이다. 그러나 高利貸金은 自然으로부터 禁止된다. 貨幣는 交換을 目的으로 하여 使用될 것이며 利子を 增殖시켜서는 안 된다. 貨幣로부터 貨幣의 生産을 意味하는 이 高利貸金(Tokos)이란 낱말은 父母와 子息에 比喩될 수 있기 때문에 貨幣의 增殖에도 適用된다. 그러므로 貨幣取得의 形態에 對하여 말할 것 같으면 그것은 가장 非自然的이다」(Aristoteles, Politics liii ad. fin, 12586)

46) Aquinas, T., Summa Theologica, II, ii, IX X V iii, 1.

高利貸金의 禁止는 최초 會議에서 法令이 制定되어 여러번 教會 會議나 教皇들에 의하여 새롭게 形成되었다(cf. Bieler, A. op. cit., p.54)

47) 프로렌스는 中世 유럽의 財政資本의 寶庫였다. 프로렌스의 世俗行政當局은 14世紀 中葉까지 高利貸金을 하는 銀行家에게 罰金を 附課했다. 그리고 50년 후 처음에는 信用去來까지 모두 禁止되었다. 禁止된 商去來는 輸入되었다(Tawney, R. H. op. cit., p. 49).

傳統的으로 教會가 高利貸金을 非難하여 오는 이유를 보면 토니 (Taewny)가 指摘하는 바와 같이

“利子を 取하는 것은 聖書에 대한 違反이고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違反이며 自然에 대한 違反이기 때문이다. 이자를 取하는 것은 惡人들을 利롭게 하기 위하여 神에게 속한 時間을 파는 것이다. 債權者들은 利子들을 自己들에게 利益을 얻게끔 有利하게 하므로써 돈을 빌려쓰는 자들에게 強奪하는 것이다. 惜用者에 대한 貸付의 惠澤은 그에게 빌려준 元金の 對價를 넘어 갈 수 없기 때문에 利子を 取하는 것은 그 自體가 不當한 것이다. 또한 그것은 健全한 法律의 法則을 破壞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金錢의 貸付가 實施될 때 빌린 物質의 所有는 債務者에게로 넘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自己의 所有가 物質을 使用하는 者로부터 支拂이 要求되는 理由는 무엇인가?<sup>48)</sup>

中世 教會는 原則上으로는 그러한 精神에서 利子の 貸付가 禁止되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世俗的인 權力 때문에 점차로 教會의 法은 緩和되어 갔다. 그러나 利子が 붙는 貸付는 그런 方式으로 實施되고 있었다. 즉 保險, 賠償金 또는 株式會社의 形式 아래서 또는 債權者의 貸付金이 債務者 때문에 損害를 보았을 때는 賠償金を 債務者에게 要求할 수 있는 權利가 債務者에게 許容되었다. 그러므로 教會는 形式上으로 法的인 禁止令이 내려졌을 뿐이며 中世末은 利潤追求가 數世紀間 常識化 되었다. 처음에 利子붙는 貸付는 諸侯間에 都市를 相對로 施行되고 있었다.<sup>49)</sup> 教會도 그러한 影響을 받아 利子が 實施되었는데 高利貸를 實施한 最初의 信者들은 教皇의 納稅官吏였던 이태리의 商人들이었다. 또한 修道院은 일찍부터 貨幣의 貸付所이기도 하였다. 16世紀 初에 이르러서는 教會가 平信徒에

48) Ibid., p. 55.

49) 당시 獨逸의 大商人 훗거家の 貸付業은 記憶할 만한 事實이다(Ibid. pp. 78-79).



게만 適用되어온 利子の 禁止法令이 教會의 高位層에서 實施된 利子붙는 貸付가 급격히 一般大衆에게 퍼져 나갔다.<sup>50)</sup>

지금까지 陰性化되어 오던 利子붙는 貸付를 教會는 陽性化하지 않을 수 없는 段階에 이르렀다.<sup>51)</sup> 그러므로 제네바에서는 宗教改革 以前에 利子の 貸付를 合法化시키기 위하여 1387年 파부리(Fabri)의 監督 프랑키제(Franchises)는 싸보이(Savoy) 伯爵의 治下에서 利子붙는 貸付의 禁止를 解除하고 利子率을 確定시켰다. 利子の 比率은 여러가지 였으나 一般的으로 三個月을 單位로 하여 5%(年 20%)의 利子率을 公認하였다.<sup>52)</sup> 그러나 宗教改革으로 인하여 祖國으로부터 追放되어 제네바로 몰려드는 避難民의 窮乏한 經濟生活과 經濟의 惡循環으로 1538年 法的 利子 5%의 比率은 1544年 6.6%(年 15% 增加)의 利子が 非合法的으로 增加되었다.<sup>53)</sup>

---

50) 13世紀 末 教會는 복잡한 高利貸金의 問題를 가지고 오는 懺悔者들을 위하여 教會는 특수한 制度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事實은 銘記할 만한 事實이다 (Ibid. p. 60).

51) 스페인의 統治者 찰스 5世 필립 2世(이들은 가톨릭의 신자들이었음)는 처음으로 利子の 12%를 合法化 헨리 8世는 1545年 10%의 利子를 固定시켰다. (cf. Bieler. A., op. cit., p. 54)

52) Ibid., p. 55.

cf. Luethy. H., "Once Again: Calvinism and Capitalism." "Encounter" XXII (Jan, 1964) pp. 26-38.

53) 利子 禁止 解除에 대한 教會의 態度는 칼빈보다 不拘하고 웨비는 칼빈이 이것을 처음 解除하였고 19세기에 들어와서야 프로테스탄티즘에 의하여 利子禁止가 破棄되었다고 보는 웨버의 主張은 타당하지 못하다.

cf. Weber. M. Wirtschaftsgeschichte pp. 347-8.

칼빈의 時代에는 이미 利子の 貸借가 實踐되고 있었다. 그러나 칼빈은 惡德商人들에 의하여 紊亂하게 되어가는 商道德과 高利貸金으로써 貧者의 金錢을 奪取하여 배불리는 富者의 非人道的인 利潤追求를 非難하였다.<sup>54)</sup> 그러나 칼빈은 貧者를 위하여 利子を 전적으로 禁止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sup>55)</sup> 그래서 칼빈은 利子を 禁止하여 오는 聖書와 教會傳統을 새롭게 解釋해야만 할 必要性을 느꼈다.

칼빈의 利子에 대한 態度는 1545年 그의 친구 사키누스(Sachinus)에게 보낸 便紙에 충분히 反映되어 있다.<sup>56)</sup>

“...만일 우리가 利子を 全적으로 非難한다면 우리는 神自身보다 人間の 良心에 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利子を 最小限度內에서 許容한다면 이런 事實으로써 많은 사람이 限界內에서 制限없이 拘束없는 自由를 가질 것입니다... 나는 그대가 인간의 본성과 形便을 考慮하여 分別있는 行動을 할 것을 疑心치 않습니다... 聖書의 證言에 의하면 利子가 全적으로 非難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sup>57)</sup>는 그리스도의 말씀은...富者에게보다는 貧者에게 奉仕하라는 意味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利子가 다 禁止되었다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모세의 律法<sup>58)</sup>은 方便의이었으므로 正義와 博愛의 精神에 벗어난 것입니다. 利子가 世上으로부터 이름조차 消滅되기를 바라는 일은 不可能하며 公益을 위하여는 必要합니다.

... 豫言書나 詩篇에서는 利子가 市場과 距離에서 施行되었기 때문에

54) Bieler. A. op. cit., p. 33.

55) Ibid., p. 57.

56) Sachinus의 便紙에는 1545년 11월 7일자로 기록이 되었으나 칼빈의 回信日字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Sachinus의 편지 일자와 別차이는 없을 것이다.

57) 눅 6:35.

58) 신 23:19.

한 都市가 邪惡한 것으로 描寫되었습니다<sup>59)</sup>... ‘자기의 돈을 邊利로 貸金치 아니하며...’<sup>60)</sup> 이러한 表現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人間이 正直하면서 동시에 貸付家가 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利子가 正義와 사랑에 어긋나지 않는 限 利子は 우리 가 앞에서 全的으로 禁止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sup>61)</sup>

以上에서 우리는 칼빈이 利子の 禁止에 對한 聖書의 解釋을 단순히 正義와 사랑의 原理 아래서 解釋하였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칼빈은 數世紀間 傳統으로 내려오는 貨幣의 非生産性的의 原理(아리스토텔레스와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를 排擊하고 貨幣는 事業資金(working capital)을 形成하는 것이므로 生産的이라는 것을 肯定하였다.<sup>62)</sup>

칼빈은 聖書에서 傳統的으로 禁止되어온 利子の 行爲를 解除함에 있어서 貧者에 대한 保護와 個人보다는 公益을 위하여 正義와 사랑의 原理아래서 施行할 것을 勸告했다. 그리하여 칼빈은 1547年 제네바에서는 5% 以上の 利子を 違法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5%의 銀行을 設立할 것을 計劃하였다.<sup>63)</sup>

칼빈 以前에는 聖書와 傳統的인 中世 가톨릭의 비난에 따라서 利潤追求가 實施되면서도 罪意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칼빈 以後로 資本의 貸借로 이루어지는 交易은 正義와 사랑의 原理 아래서 칼빈의 勸告와 道德的 非難없이 改革派의 信仰의 支持者들에 의하여 從事할 수 있게 되었다. 칼빈의 追從者들은 正義와 사랑의 原理

59) 시 55:11.

60) 시 15:5.

61) Harkness, G., John Calvin: Abingdon press. New Yofk, 1931. pp. 204-6.

62) Bieler, A., op. cit., p. 56.

63) Ibid. p. 57.

에 따라서 良心의으로 利潤追求를 躊躇하지 않고 經濟行爲를 할 수 있었다.

## V. 結論

以上에서 우리는 웨버의 職業概念과 經濟倫理에 대하여 理解와 批判을 兼해 왔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까지 論議되어온 웨버의 職業概念과 經濟倫理에 대한 理解와 批判을 간단히 要約하고 評價하므로써 이 小論을 맺고자 한다.

웨버의 思想은 新칸트學派의 빈델반트(Windel Band), 딜타이(Dilthey), 릿켈트(Rickert)의 認識論과 프로테스탄트의 슬라이엘마하(Schleiermacher), 릿츨(Ritschle), 트릴취(Troeltsch)에 이르는 自由主義 神學의 綜合이다. 그러므로 웨버가 形成한 倫理의 基本原理는 '宗教的이며 倫理的인 과제'가 그의 中心이다. 이러한 基本原理는 그의 二重倫理 卽 心情的 倫理와 責任의 倫理에서 澈底히 나타났다. 心情的 倫理는 聖書의 敎訓에 根據한 宗教的인 倫理를 말하며, 責任의 倫理는 社會文化的인 努力에 根據한 人間學的인 倫理를 말한다. 따라서 웨버의 倫理는 그 中樞가 宗教的 理念과 社會經濟勢力間의 相互聯關性을 維持하는 것이다. 웨버의 이러한 倫理的 課題는 代表的인 著書 「프로테스탄트의 倫理와 資本主義의 精神」에서 試圖되었다.

웨버는 그의 著書에서 資本主義 精神의 倫理的 起源을 프로테스탄트의 世俗的인 職業思想에서 찾으려고 하였다. 즉, 그는 利潤追求와 合理性을 特徵으로 하는 資本主義의 倫理性은 勤勉, 儉素, 節約, 正直을 職業義務로 하는 칼빈주의의 非人格性과 禁慾主義의 職業活動에서 起源되었다는 假說을 세웠다. 그러므로 웨버는 職業概念과 經濟倫理의 相互聯關性을 說明하기 위하여 먼저 資本主義 精神의 規定을 嚴格히 하였다. 그리고 資本主義 精神의 倫理的 性格

을 代表的으로 나타내었다고 보는 벤자민 프랭크린(Benjamin Franklin)의 「젊은 商人에게 주는 助言」에서 利潤追求와 合理性의 根據를 例로 들고 있다. 또한 웨버는 프로테스탄트의 職業義務의 精神을 擧げた 代表的인 神學理論의 基礎를 루터로부터 시작하여 칼빈에 이르는 職業思想과 칼빈주의의 二重豫定論을 論理的 根據로 삼았다. 그리고 웨버는 그의 獨特한 社會科學의 方法論인 理念型의 方法을 驅使하여 兩者間의 適合性을 追求하였다.

웨버에 의하면 職業 Beruf란 말의 起源은 舊約聖書의 經外典 예수 씨락書(11:20-21)에서 루터가 처음으로 宗教的이며 倫理的인 性格을 지닌 意味로 解釋을 하였다고 한다. 웨버는 宗教改革 以前과 以後의 諸民族의 聖書翻譯에서 言語에 대한 考察을 通하여 職業에 대한 말을 分析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말들은 모두다 倫理的 性格을 缺如하였으며 客觀的 秩序(宗教的 意味)로만 使用되었을 뿐이라고 한다. 또한 웨버에 의하면 루터의 職業思想은 活動主義를 警戒하고 傳統主義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經濟生活의 特殊한 原理나 發展을 가져오지 못하였으며 資本主義 精神과의 內面的 關係는 전혀 없다고 한다.

그러나 豫定論에 支配的인 關心을 가지고 있던 칼빈主義者들은 救援의 確信性에 대한 與否를 把握하는 길은 世俗的인 職業活動의 成功으로써 試金石을 삼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非人格的인 金욕생활을 通하여 職業義務를 履行하였다고 웨버는 主張하였다. 이와같이 칼빈主義者들의 禁慾主義에 따른 非人格的인 職業活動은 消費를 節約하고, 節約에 따라 貯蓄이 形成되고, 貯蓄된 資本은 生産에 利用되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칼빈主義者들의 職業活動은 經濟倫理의 새로운 原理를 낳고 資本主義 精神의 倫理的 性格을 이루었다고 웨버는 主張한다.

그러나 우리는 웨버의 論題 안에서 發見된 몇가지 두드러진 誤謬를 다음과 같이 指摘할 수 있을 것이다.

1) 웨버는 루터의 職業概念에 대한 解釋에 있어서 너무나 '主觀的 意味'에 立脚한 '宗教的이며 倫理的 課題'의 尺度에서 보았다. 웨버는 Beruf의 概念을 新칸트學派의 '至上命令'인 道德的 義務履行의 色彩 아래서 解釋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福音보다는 內的 召命을 더 重要視하게 되었다. 그러기 때문에 웨버는 Beruf의 起源을 福音에 根據한 루터의 고린도전서 7장 20절의 解釋에 滿足하지 않고 福音에 根據하지 않은 舊約聖書의 經外典 예수 씨락書 11장 20-21절에서 그 起源을 說明하므로써 루터의 職業概念에 誤謬를 범했다.

2) 웨버는 칼빈주의의 二重豫定論을 強調하기 위하여 이 敎理가 가장 澈底化된 「웨스트민스터 信仰告白」에서 그 論理的 基礎를 끌어왔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信仰告白」은 칼빈의 基本意圖가 歪曲되어 作成된 敎理라는 点에서 볼 때 웨버는 이미 그릇된 敎理를 끌어들여 基本原理로 삼았기 때문에 그 自體 안에 矛盾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칼빈의 本來意圖는 決코 二重豫定論을 敎理化하지는 않았다.

3) 웨버는 豫定論을 主唱하는 칼빈주의 活動만을 強調하고 引用하므로써 自由意志를 主唱하는 알미니안主義의 集團을 看過하여 버렸다. 産業이 發展한 프로테스탄트 地域에는 오히려 알미니안主義가 칼빈주의의 活動보다 더욱 重要視 되었음을 우리는 指摘할 수 있다.

4) 웨버는 中産階級の 經濟倫理를 낳은 禁慾主義가 칼빈주의의 産物이라고 主張하나 儉素와 節約을 기초로 하는 禁慾主義 思想은 일찍이 古代의 스토의 哲學이나 中世의 가톨릭에서 謹行되어 왔을 뿐이다.

5) 웨버는 칼빈주의와 資本主義 精神間의 內面的 親和性을 主張하고 있으나 칼빈은 當時의 腐敗한 社會風潮를 바로잡기 위하여 謹慎, 正義, 敬虔의 三大德을 主唱하므로써 社會의 淨化運動과 貧富

間의 相互扶助와 連帶意識을 強調하고 奢侈를 禁止하고 健全한 財貨의 流通을 獎勵하였다. 이 點은 오히려 칼빈을 資本主義 精神보다는 社會的 휴머니즘의 面貌를 길으게 하는 것이다.

6) 웨버의 主張에 의하면 歷史的으로 禁止되어 오던 高利貸금이 칼빈에 이르러 解除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칼빈보다 150年 앞서 이미 제네바에서는 파브리(Fabri)의 監督이 高利貸金을 合法化하고 있었다. 칼빈은 이미 利子が 合法化되어 있는 時代에 살면서 不當한 利子を 非難하였다. 칼빈은 貧者를 保護하고 個人보다는 公益을 위하여 最小限의 公認된 銀行의 利子運用이 오히려 經濟行爲에 있어서 不可避한 것임을 力說하고, 聖書를 正義와 사랑의 原理 아래서 施行할 것을 勸告하였다.

7) 16世紀 칼빈은 中世期의 經濟行爲에서 그의 改革思想에 따라 새로운 時代의 經濟制度를 誕生시켰다. 웨버의 主張에 따르면 近代 資本主義 精神은 칼빈주의의 經濟思想에서 起源된 것으로 理解하였다. 그의 論題에 대한 贊反討論이 歷史的으로 계속 進行되어 왔다. 無產階級을 背景으로 한 共產主義의 經濟理論에 대한 反論으로 칼빈의 思想은 中產階層을 이루고 있는 經濟倫理가 되어 資本主義 精神을 發生시킴으로 經濟思想의 根幹이 되었다고 解釋하기도 하였다. 또한 基督教 社會主義의 經濟理論을 代案으로 하여 칼빈의 經濟思想에 根幹을 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最近에 와서 共產主義 經濟體制의 崩壞를 보면서 資本主義와 共產主義 이데올로기를 넘어가는 第3의 經濟理論을 代案으로 생각하면서 역시 칼빈의 經濟思想에서 起源을 두고 새롭게 解釋하려는 傾向이 擡頭되고 있기도 하다.

徹底한 召命과 職業意識에 根幹을 둔 칼빈의 經濟思想은 새로운 時代의 經濟倫理를 誕生시킨 조명탄이 되었다. 改革者의 思想 속에 도도히 흐르고 있는 謹慎, 正義, 敬虔의 三大德을 原理로 貧富間의 連帶意識과 貧者를 保護하려는 엄격한 人類愛는 社會的 휴머니즘

(Social humanism)의 精神을 誕生시켰다. 칼빈의 社會的 휴머니즘에 根幹을 둔 經濟思想은 또다시 現代의 解釋을 可能하게 한다.

지금 우리는 이 地球上의 새로운 變革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提示될 수 있는 새로운 經濟思想의 代案으로 改革者의 社會的 휴머니즘의 意圖的 作業을 다시금 우리時代의 理想型的 모델의 方法論으로 論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 參 考 文 獻

## I .

Weber, M.,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trans. by Talcott Parsons,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8.

"The Protestant Sects and Spirit of Capitalism", From Max  
Weber: *Essay in Sociology*, trans. by Gerth, H. H. and  
Wright, C. M. New York, 1946.

"Politics as a Vocation", From Max Weber: *Essay in Sociology*,  
trans. by Gerth, H. H. and Wright, C. M., New York,  
1946.

"Science As a Bocation", From Max Weber: *Essay in Sociology*,  
1946.

"Wirtschaftsgeschichte, (趙璣俊譯 社會經濟史)" 서울, 文研社.

*Gesammelte Aufsätze zur Wissenschaftslehre*, Tuebingen .  
1922.

*Religion of China*, New York, Free Press, 1959.

## II .

Barth, K., *Church Dogmatics*, III/4, Edinburgh, T & T Clark,  
1961.

Bendix, R., *Max Weber: an omte: ectia: Portrait*, New York:  
Doubleday & Company, Inc., 1962.

Best, E. E., "Max Weber and the Christian Criticism of Life",  
*Theology Today*, X VI (July, 1959).

Bieler, Andre., *The Social Humanism of Calvin*, Geneva, Jo-  
hn Knox Press, 1961.

- Billing, E., *Our Calling*, Philadelphia, Fort Press, 1947.
- Bouwsma, J. William, *John Calvin: A Sixteen Century Portrait*(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 Brunner, E., *The Divine Imperative*, Londonm Lutter Worth Press, 1951.
- Brunner, E., *Christianity and Civilization*(金在俊譯) 서울, 文教部, 1963.
- Calhoun, R. L., *Work and Vocation in Christian History*, ed. by Nelson, J. O. *Work and Vocation*,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954.
- Calvin, J.,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s. I. II*,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Mclmx.
- Calvin, J., *Concerning The Eternal Predestination of God*, London, James Clark & Co., 1961.
- Eugene, E. L., "Ritschl's Theory of Value-Judgements", *The Journal of Religion*, (Sept. 1925).
- Fanfani, A., *Catholicism, Protestantism and Capitalism*, London, Sheed and Ward, 1935.
- Fullerton, K., "Calvinism and Capitalism" ed. by Green, R. W., *Protestantism and Capitalism, The Weber thesis and its critics*, Boston D. C. Heath and Co., 1959.
- Graham, W. Fred, *The Constructive Revolutionary: John Calvin and His Socio-Economic Impact* (Atlanta: John Knox press 1978).
- Harkness, G., *John Calvin: Man and His Ethics*, New York: Abingdon Press, 1931.
- Harkness, G., *Christian Ethics*.(金在俊譯) 서울, 大韓基督教書會, 1963

- Honigsheim, P., *Max Weber: His Religious and Ethical Background and Development*, Oregon, Lewis and Clark College Portland, 1959.
- Hudson, W. S., "Puritanism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ed., by Green, R. W., *Protestantism and Capitalism*, 1959.
- Luethy, H., "Once Again: Calvinism and Capitalism," *Encounter*, X X I I, (Jan., 1964)
- Luther, M., *Die Deutsche Bibel*, 7 Bd, Das Neue Testament, Germann Bohlaus Nachfolger Weimar, 1931.
- Robertson, H. M., "Aspects of the Rise of Economic Individualism: Criticism of Max Weber and His School", Green, R. W., *Protestantism and Capitalism*, 1959.
- Reidw. Stanford, "John Cavin: the father of Capitalism", *The Melios*, Vol. 8, No. 2(January 1983).
- Smith, R.(ed.), *American Christianity: Interpretation and Documents*,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60.
- Sombart, W., *The Quintessence of Capitalism*, London: The Ford Press, Glencee, 1951.
- Sombart, W., *The Jews and Modern Capitalism*, London: The Free Press, Glencee, 1951.
- Tawney, R. H., *Religion and The Rise of Capitalism*, London: West Drayton, Middlesex, 1948.
- Troeltsch, E., *The Social Teaching of the Christian Churches*, Vol. II, New York: The Macmillan Co., 1931.
- Wallace, Ronald, *Calvin, Geneva and The Reformation*(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 House, 1988).
- Weber, Marianne, *Max Weber*, Heidelberg, Lambert Schnei-

- der, 1950. Wingren, G., *The Christian's Calling: Luther on Vocation*, Oliver and Boyd, Edinburgh, 1958.
- Yinger, J. M., *Religion, Society and the Individual*,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60.
- Religion in the Struggle for Power*,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1946.
- 李章植, 基督教思想史 第2卷 서울 大韓基督教書會
- 全景淵, 칼빈의 生涯와 그 神學思想 서울, 新敎出版社
- 鄭賀恩, 칼빈의 倫理와 現代的 解釋 神學研究 第9輯 韓國神學大學神學會
- 池元溶, 豫定觀에서 본 루터와 칼빈 神學研究 第8輯지
- 池元溶, 루터의 職業觀 延世春秋 第450號
- 崔文煥, 막스 웨버의 資本主義類型 經濟論輯 第3卷 2號 1964.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韓國經濟研究所